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8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11일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광주 자동차 도시 대도약 뿌리산업 특화 육성한다

시, 특화단지 지정 총력 추진
용접 등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자동차 도시' 광주가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차체와 섀시 등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핵심 뿌리 기술인 '용접'을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정부 공모에 나선다. 자동차 동력발생 장치, 전장부품(電裝部品)의 급격한 변화에도 골격을 만드는 용접분야는 아직까지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차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광주지역 부품 기업들의 생존과 기술 고도화를 담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광주시가 지난 4일 평동·하남산업단지 등에서 조업하고 있는 ㈜호원, 코비코㈜, 은혜기업 등 주요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정책이다.

하남산단에 위치한 1차 협력사 ㈜호원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량화를 위해 필수적인 '리벳 접합' 기술의 고도화를 강조했다.

평동산단의 코비코㈜는 군수용 차량 제작에 많이 쓰이는 'CO2 용접'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2차 협력사인 은혜기업은 납품 부품 200여 개에 대한 전수 파괴 검사의 비용·인력 부담을 토로하며, 비파괴 품질 인증 체계와 실시간 품질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화단지 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했다.

이런 현장의 요구는 광주시가 수립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한양대학교 이세헌 명예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광주의 강점 산업으로 '용접 기술'을 낙점했다. 광주에 소재한 7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 중 상당수가 외장, 섀시, 차체 등 용접 공정이 필수적인 업체들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용접을 넘어 설계, 공정, 인공지능(AI), 신소재, 검사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평가 기준 변화도 광주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모 방침도 광주시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산업부 설명회 결과, 올해 특화단지 지정 평가에서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지자체의 지원 의지' 항목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시는 정부의 공모방침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라는 시그널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 연계 용접 특화단지'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평동·하남산단을 중심으로 용접 공정의 디지털 전환(DX), AI 기반 지능형 용접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산업부에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차체를 조립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용접 기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지역 뿌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차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가 새로운 예외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성을 지적했다. 4명은 헌법불합치, 4명은 위헌으로 판단했고 1명만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일단 포괄적인 사전신고 의무 부과 자체는 행정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뚜렷하게 적고 실제 평화롭게 끝난 집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삼일절 앞두고 행정통합 환영 만세삼창 제107주년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응원 메시지가 새겨진 대형 태극기 앞에서 만세삼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광주·전남 통합 맞춰 무안공항 재개항 서둘러야"

강기정 시장, 폐쇄 장기화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광주시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넘게 멈춰 선 무안국제공항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광주공항에 국제선 임시 취항을 허용하는 등 지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차담회를 열고 "무안공항 폐쇄 장기화로 지역 관광업계의 매출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시민들의 항공 편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 이후 지역민들은 인천이나 김해공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기준 광주시민 50만명가량이 버스와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찾았으며, 김해공항 이용객도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 시장은 "공항까지 이동하는 데만 왕복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해 있다"며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안공항 정상화 전까지 광주~인천 국내선 취항이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과거 국제선 운영 경험이 있는 광주공항의 경우,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건물 형태의 입출국 시설을 보완하면 6개월 안에 국제선 수용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행정적 지원과 협의를 즉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재개항의 최대 걸림돌인 유가족과의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강 시장은 "유족들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활주로 중심선 정보 제공 장치) 등 공항 시설물의 결함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시스템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발표한다면 재개항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관광업계가 올 겨울 동남아·일본 등 근거리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에는 확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맞춘 무조건적인 재개항 의지 표명이나, 그게 어렵다면 올겨울 시즌 전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이라는 '플랜B'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도 이날 무안공항 재개항에 대한 이 대통령 관심을 환영하면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환영문을 내고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님의 분명한 주문이 있으신 만큼 관계부처가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전남·광주가 통합특별시로 태어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등에 ▲사고조사의 조속히 완료 및 투명한 공개 ▲조사 결과 드러난 과오에 대한 위로와 사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1절 대체휴일…2일자 신문 쉽니다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